

제주여성문화유적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덕

1. 머리말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주의자들이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라 본다면, 한국에서도 이런 사조에 힘입어 경제적·법적 지위가 획득되었다고 본다. 이후 역사에서 여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으며, 그들의 기여도, 그들에 대한 예우 등에 관심을 갖고 여성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사, 한국여성문화사 등 일련의 연구물이 나왔으며, 이에 발맞추어서 역사에서 출발한 여성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적어도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성 인지적 관점으로 문화유산을 고찰한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제주여성의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은 역사적 자료에도 있으나 제주여성의 어떤 기질이 전승되고 있으며,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물은 『제주여성문화』(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2006), 『제주여성사 I』(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등에 언급되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제주여성문화유적』(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100』(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에 들어 있다. 여기서는 후자 두 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여성문화유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제주문화에서 여성문화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논의한 것이 제주여성문화유적이다. 여기서 제주여성문화유적이란 제주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동참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문화를 생성한 특정 공간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그 열이 전승되는 유적지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여성문화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이 용어가 제주문화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정리한다.

제주여성문화유적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위하여 예비 조사를 한 후 제주여성문화사 정립의 토대가 됨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8년에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기초조사를 한 셈이다. 제주도 자연마을을 모든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후 필자들이 해당마을을 찾아가서 여성들이 그곳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 전승되는 요소를 찾아서 담으려고 노력했다. 유적지 조사 결과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생활양식이 드러났는데 이런 점이 유적의 가치일 것이다. 2009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적지의 유형과 마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00곳을 선정했다. 제주도의 부속섬(추자도, 우도,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은 한 곳으로 정한 후 그 섬의 특정 여성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여기서 100은 최상의 곳이 아니라 우선 알릴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주제별, 지역별로 '00선 시리즈' 출간이 가능하다.

제주의 문화

2. 여성문화유적지 재조명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서는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여성문화유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정 공간을 소개하겠다. 물통은 용천수와 봉천수가 해당되며, 여성들의 노동공간이자 담화공간으로 살아남은 곳이다. 조선시대 기록에 등장하는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전문직업이며, 21세기에는 세계문화유산등재로 논의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 해녀들의 아고라인 불턱이 지금도 남아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공존하는 것이며, 제주의 환경에 어울리는 성지로 신당이 남아있다. 인류에게 불과 더불어 필수품인 소금이 제주의 해안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신성한 유적이 남아있다. 농경시대에 정미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물방아가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여성신화의 주인공이 활약했던 공간이 있으며, 위대한 여성들이 흔적을 남겼던 장소도 남아있다. 현장과 기록을 통해서 제주여성문화유적지를 되새겨 본다.

1) 인간의 생명수 : 물통

제주도는 섬이어서 물 부족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산(靈山) 한라산이 있어서 지금도 1급수 식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의 옛 사람들은 식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통을 통해서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인류사에서 인간은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으며,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제주의 물통을 보면 해안마을에는 용천수(쏟아나는 물)가 주를 이루며, 중산간마을에는 봉천수(인공물통, 빗물 등)가 주를 이룬다. 먼저 용천수의 특징으로는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며, 산물(살아있는 물)이라 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바닷가에 있는 물통은 밀물일 때는 물맛이 짜서 사용하지 않고, 썰물일 때 주로 길어다 먹는다. 봉천수는 인공으로 물통을 만들어

서 고인 물을 사용하는 곳이다. 중산간마을에서는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목장지대에서는 마소용 봉천수들이 있었다. 봉천수도 식수용, 빨래용, 우마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했으며, 이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곳이 매립되었지만 지금도 마을 곳곳에 습지나 연못으로 단장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는 식수로, 현재는 공원으로 인간들에게 생명수의 기능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물통을 여성문화유적이라 하는 것은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마을이나 집안에 대소사(大小事)가 있을 때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을 길는 도구에는 물구덕(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물허벅(물동이)이 있으며, 물허벅을 놓는 곳을 물팡이라 한다. 여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항(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을 가득 채우고, 밥을 하고, 일터로 나갔다. 용천수 주변은 넓은 공간이 있어서 빨래를 하고, 널어서 말리는 동안 놀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물통의 구조를 보면 물이 솟아나는 곳은 식수용이고, 그 다음 칸으로 흐르는 물은 채소를 씻고, 그 다음 칸에서는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했다. 지금도 이런 구조로 남아있으며 마을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지붕을 덮어서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에 상수도시설이 되고 집집마다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용천수는 언제나 샘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따라서는 물통을 관리하면서 여름에는 노천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안마을을 다니다보면 용천수가 있는 곳은 여자목욕통과 남자목욕통이 구분되어 있으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가꾸려는 의지가 있는 곳은 보존에 힘쓰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빨래와 목욕 시 합성세제를 사용하면 바로 바다로 흘러가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곳은 물통 입구에 합성세제 사용금지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 누구나 이런 곳을 사용하게 되면 안내문이 없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물통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또 하나 아쉬움이라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아름다운 물통을 인위적으로 복원하면서 천편일률적인 모양을 만드는 점이다.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원형을 참작해서 돌담으로 보호하는 정도만 복원하기 바란다. 어느 마을은 원래 물통의 수량이 풍부하고 돌담으로 남아있던 곳인데 조사 후 다시 가보니까 물통의 울타리를 시멘트로 마무리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였다. 유적의 참 모습과 의미를 고려하면서 보존한다면 진정한 여성문화유적으로 남을 것이다.



〈신촌리 수물〉

2) 해녀들의 아고라 : 불턱

제주의 해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부터 제주바다의 해산물을 채취해서 가정경제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지금까지 제주의 한 축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 결정체로 해녀박물관(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이 개관되었다.

해녀들은 천으로 만든 물소중이를 입고, 물안경을 쓰고, 테왁에 의지해서 일년 내내 물때(조업 시기)에 맞추어 바다밭을 공략해왔다.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 돌무더기를 쌓거나, 바위를 의지쳐 삼아 불턱을 만들었다. ‘불턱’을 만들 때는 동네 남자들이 합심하여 돌을 나르고, 쌓아 주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해녀들의 쉽

터와 사랑방으로 제 기능을 다했다. 이러한 돌담형불턱은 해녀들이 앉아서 불을 쪼을 수 있도록 주로 타원형이며,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이다.

해녀들이 물질하러 갈 때 바구니 속에 빨감을 넣고 그 위에 테왁을 얹은 다음 등에 지고 가서 팥돌에 놓는다. 한겨울에도 한 겹의 물소중이를 입고 바다에 드나들기를 여러 번 하면서 소라와 전복,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목숨을 걸고 노동을 했다. 그러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겸 물으로 올라와서 불턱에 모여 앉아 불을 쪼었다. 해녀들은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데 불턱에도 서열이 있어서 어른을 대접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고무옷(고무로 만든 물옷)이 보급되면서 불턱은 점점 기능을 상실했다. 마을에 따라 지금도 돌담형불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현대식불턱(보일러 시설을 갖춘)이 있어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우도(제주시 우도면)에는 돌담형불턱, 시멘트형불턱, 현대식불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잘 보존되어 있다. 시멘트형 불턱은 물질도구를 보관하고, 상황에 따라 임시불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허물지 말고 보존되기 바란다.

여성문화유적을 조사한 결과 해안마을 곳곳에 돌담형불턱 흔적이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원형을 나름대로 보존하는 곳도 있었다. 제주 해녀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노동공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해녀들의 고통스런 노동을 생각한다면 숭고한 장소를 의미 있게 보존하고, 안내문을 덧붙여서 전승하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

3) 인간의 염원을 기원하는 곳 : 신당

제주여성문화유적으로 남아있는 신당(神堂)은 주로 본향당이다. 해안마을에 있는 본향은 해신당으로 해녀와 어부들의 성소로 지금도 멘토로 존재

제주의 문화



〈북촌리 고지불턱〉

한다. 신당으로 백जू도여신이 좌정한 송당본향당을 비롯하여 와흘본향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소가 있으며, 마을마다 당굿을 여는 곳, 어업인들이 바다밭으로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곳 등 신당은 제주여성들의 안식처로 남아있다. 또한 일뤼당, 여드렛당 등 자손의 안녕을 비넘하는 신목, 궤, 집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당골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신당은 마을사람들의 성소였으며, 당골들이 많을 때는 보존과 관리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당골의 수효가 줄어들고, 다른 종교의 교세 확장에 따라 무속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본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신앙이었으며, 그 신을 의지해서 후손들이 생활해왔다. 시대에 따라 종교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도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조상들의 종교관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나와 다른 종교라 해서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그 사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신당(본향당)은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본다.

제주도 곳곳에 살아있는 신당은 당골의 유무에 따라 존폐가 달려있으며, 커다란 신목에 물색과 지전이 매달려 있고, 타다 남은 초들의 흔적을 통해서 당골들의 드나듦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신당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신성한 성소가 훼손되기도 한다. 즉 신목에 페인트

로 칠하거나, 칼로 생채기를 내거나, 돌담을 허물기도 한다. 종교에 대한 이질감을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 대한 배려로 이해한다면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기능한 신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문화유적을 조사하면서 아쉬운 점은 신당 주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당골들이 비넘한 후 걸어든 지전을 함부로 걷어버린다는 점, 신당에 있는 제단을 심터로 착각하게 그 앞까지 길을 만들어버려서 신성한 장소인지 나무그늘이 있는 심터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 또한 비넘하러 가서 올려두었던 제물을 잘 마무리하지 않고 함부로 놔두면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변이 더러워지기도 한다. 당골이 있는 곳은 잡풀을 베고 주변을 깨끗이 정돈해서 엄숙함이 배어 있지만, 당골이 없거나 그 수효가 줄어드는 신당은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신목도 초라하게 여겨진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여성유적의 명암이 갈림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신당을 우연히 방문하거나 지나가게 되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경건하게 머물기를 바란다. 또한 마을에서는 본향당임을 알 수 있게 안내문을 붙이고,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여성유적 전승자의 의무이다.



〈와흘본향당 서정승따님아기〉

4) 음식의 필수품을 생산하는 곳 : 소곰밭

인간의 필수요소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금은 아주 중요하다. 제주도에서 소금을 생산했을까가 의문이었지만 여성유적을 조사하면서 해안마을 곳곳에 염전지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구엄리(제주시 애월읍 소재) 바닷가에 있는 소곰빌레는 소금틀을 재현했으며, 동일1리 날뤼소곰밭은 2009년 여름에 재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태흥2리에 있는 소곰밭도 유명하다. 제주시 해안도로변에 있는 어영소곰빌레, 애월리 바닷가에 있는 배무송이소곰밭, 종달리에 있는 소곰밭 등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마을마다 나름대로 소금을 만들어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처럼 결정체가 완성된 소금이 아니라 짠물이 증발하고 소금결정체가 조금 생기면 그 물을 허벅으로 길어다가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만들었다. 또한 바닷가 웅덩이는 배추절임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마을에 따라 소곰밭 재현을 시도하고 있거나, 아예 방치한 곳도 있다. 소곰밭을 여성유적으로 다룬 것은 소곰허벅을 지고 다니거나, 팔러다닐 때 여성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소곰밭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지만 마을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방치된 곳은 이제라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힘써주길 기대한다. 예전처럼 소금을 생산할 수 없을지라도 옛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 제주문화유산을 파악하고 보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전승할 의무가 있다.

5) 곡식을 가공하는 곳 : 밀방애(연자매)

연자매는 우리나라 전역에 있었지만 제주도는 특별히 말을 이용해서 도정했기 때문에 밀방애라 불렸다. 말이 없을 때는 소를 이용하거나, 마소가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이 같이 방아를 돌렸다.

밀방애에서는 주로 조와 보리를 도정했는데 여성들은 곡식을 갖다놓고 순서를 기다렸다. 보리를 물에 주물러서 바가지로 담아놓으면 말들이 빙빙 돌아가면서 도정이 되었다. 껍질이 벗겨지면 체로 쳐서 쌀알과 가루를 분리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서는 개인 밀방애를 가질 정도였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공동의 밀방애를 이용했다. 같은 시기에 도정을 하니까 순서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일제강점기에 정미소가 있었지만 1960년대에 정미소가 보편화되면서 밀방애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밀방애는 주로 마을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거나, 공터로 남아있다. 밀방애 위쪽은 넓은 돌이라 특정한 곳을 매립할 때 뚜껑으로 사용하고, 아래쪽은 마을 곳곳에 박혀서 의자로 기능하거나, 곳곳에 묻어 있다. 지금도 마을을 다니다 보면 마을 공원 한쪽에 모아놓은 밀방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6) 신성한 곳 : 신화·전설지

제주도의 형성기에 창조신화가 등장한다. 자연환경은 지각변동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본다면 인문환경은 인간이 주인공이므로 그 이전에 신이 등장한다. 역사시대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찾아내고 현재 자신들의 존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선사시대를 쫓아서 퍼즐 맞추기를 시도해왔다. 종족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의 영화를 기억해 내기 위하여 신화를 차용한다. 다행히도 제주도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문헌신화로 「삼성신화」가 있으며, 이보다 더 풍부한 무속신화가 전승되고 있다. 무속신화의 대표격인 「천지개벽」신화에는 제주도의 형성, 해와 달 등 우주의 창조 이야기가 전해오며, 제주의 위대한 여신으로 설문대할망이 존재한다.

제주여신들-설문대할망, 조왕할망, 삼승할망, 영등할망-에 등장하는 '할망'은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위대한 여신을 뜻한다. 지금까지 제주사람들

제주의 문화

은 설문대할망을 노파로 인식해왔으며, 주름살이 잡힌 노인의 얼굴을 그린다. 제주여성들은 지금까지 구체화된 적이 없으므로, 채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기를 바란다. 즉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신 등 자신들의 희망을 품은 대상을 이미지화할 일이 남아있다. 아무튼 제주섬을 창조한 설문대할망의 족적은 제주 곳곳에 남아있다. 치마폭에서 흘러내린 흙이 쌓여서 생긴 오름들, 산방산, 범섬, 섯섬, 관탈섬 등 설문대가 일터로 삼은 곳, 용연, 홍리물, 물장을 등 시험대로 삼은 샘들, 성산일출봉에 있는 등경돌, 육지와 다리놓기를 시도한 영장메코지(조천) 등 설문대할망은 여신으로 전설상의 인물로 남아있다.

산방사(안덕면 사계리)에 가면 산방택이의 눈물이 떨어지는 샘이 있으며, 삼성신화의 주인공인 벽랑국 세 공주가 입도한 황날(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과 이들이 혼인한 혼인지가 있다. 이곳은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런 유적은 지금까지 단순히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문화유적지임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설문대여신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2010년 1월 13일 개관)로 지상에 안착하게 되었으며, 신화의 주인공이 현

실화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7) 제주의 위대한 여성들 : 열녀, 역사적 인물 등

조선시대 제주여성으로 조정에 이름을 떨친 김만덕(1739~1812)과 의술을 펼친 장덕과 귀금이가 있어서 제주여성들의 저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조정철(1751~1831)의 연인이며, 절개를 지킨 홍윤애(?~1781)가 있다. 홍윤애 묘비는 우수암리(제주시 애월읍 우수암리 소재)에 있지만, 송고한 여성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어서 아쉽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 제주에도 열녀들이 많이 있었으며, 열녀비가 남아있다. 기록상 제주 최초의 열녀로는 고려시대 사람으로 '열녀 정씨 비'가 한남리(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에 남아있다. 고씨 부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오는 절부암(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이 있어서 매년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관리하면서 그의 절개를 기리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라면 절부암제를 지낼 때 남성들만 제관으로 참여하는데 여성 중심의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 상상해 본다.

열녀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용어가 생겨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당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음미하면서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적의 가치일 것이다.

제주의 여성들은 조선시대 여성[女丁; 예칭]으로 제주의 방위에 동참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한국 최초의 여군으로 국방에 참여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관련 여성유적지로 무명천할머니기념관, 보초를 서던 여성들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선흘리 낙선동 성터 등이 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주인공>

3. 맺음말

제주여성문화유적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한 특정한 공간들이며, 그 생산 현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다. 제주도 곳곳을 빚내고 있는 여성유적을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 재현해서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제주여성들의 의무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을 곳곳에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남성들이며, 여성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곳을 복원하고 재현할 때는 그곳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사용했던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소개한 두 권의 책은 제주문화유적의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마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유적 사진은 현재의 시점임을 밝혀둔다.

제주문화 중 여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여성문화유적으로 물통, 불턱, 신당, 소곰밭, 물방애, 신화·전설지, 인물 등은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제주여성문화유적은 더 많이 묻혀 있으며, 기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세상 밖으로 꺼내서 공유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유적들은 여성들의 관심과 사랑 정도에 따라 보존과 훼손이 달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그 중심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마을 여성들이 스스로 동참하지 않는 것인지, 오랫동안 남성중심의 마을 공동체가 운영된 결과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성들이 선배여성들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또한 마을에서는 이런 의식으로 여성들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두 권의 책을 펴 놓고 여성문화유적 순례코스를 정할 수 있다.

▶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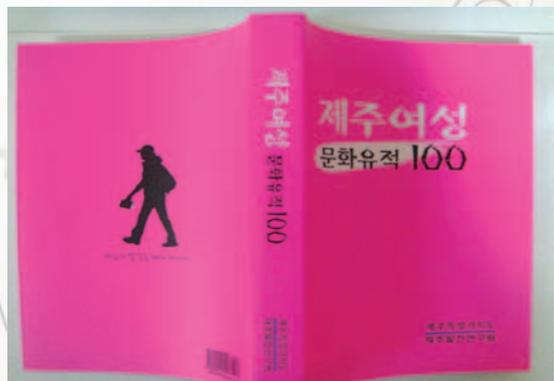
우선 책 내용이 읍면별로 배열되어 있어서 제주시를 출발점으로 하면 동쪽이나 서쪽으로 한 바퀴 돌 수 있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도 마찬가지로이다. 여행 일정에 따라 하나의 읍·면을 선정한 후 살살이 찾아가 보는 방법이 있다.

▶ 주제

제주도 지도를 놓고 여성문화유적지를 주제별로 점을 찍고 다닐 수 있다. 책에 제시한 대로, 물통의 분포지를 표시한다. 신당의 분포지를 표시한다. 불턱의 위치를 표시한다. 어느 유적지를 표시하더라도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걸린다. 특히『제주여성문화유적 100』에는 부록으로 유적지를 표시했다. 이 지도를 참고해서 여행 일정을 계획해도 좋을 것이다.



〈제주여성문화유적〉



〈제주여성문화유적 100〉